

메타버스 올라탄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엔비디아

해외주식 Click

비대면문화 확산에 메가트렌드 굳혀 엔비디아, 오픈플랫폼 '옵니버스' 출시 3주간 순매수 1위 메타, 2위로 밀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메타버스(Metaverse·초월 가상세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메가트렌드로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8~14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주식 1위 종목은 엔비디아다. 이 기간 1조4235만달러를 사들였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1년간 128.97% 상승했고, 특히 최근 1개월간 37.33% 급등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는 자사 개발자 컨퍼런스인 G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종목)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엔비디아	1조4235만
2	메타	6027만
3	마이크로소프트	4181만
4	비자	3539만
5	아이온큐	3407만
6	페이팔	3285만
7	화이자	3051만
8	아이셰어즈 1~5년물 단기 회사채 ETF	2952만
9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시리즈 1 ETF	2672만
10	알파벳 A	2418만

기간: 11월 8~14일, 단위: 달러. /한국예탁결제원

TC2021에서 '옵니버스(Omniverse)'를 공식 출시했다. 옵니버스는 산업, 제조, 디자인, 엔지니어링, 자율 주행 자동차, 로보틱스 등 모든 환경에서 메타버스를 개발하기 위한 오픈 플랫폼이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의 2000만명에 달하는 개발자들이 뉴클러스(Nucleus)라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통해 옵니버스에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메타버스용 시뮬레이션 및 3D 렌더링을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많은 개발자들의 참여에 따라 향후 5개년 간 옵니버스로부터 100억 달러의 매출 달성이 기대된다. 또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컴퓨팅 하드웨어항 반도체 매출에서도 막대한 매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3주 연속 순매수 1위를 기록했던 메타는 2위로 밀려났다. 이 기간 6027만달러를 순매수했다. 페이스북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 17년간 사용했던 사명을 변경함으로써 메타버스 종합회사로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선언한 셈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티커도 기존 FB에서 MVR로 변경돼 거래될 예정이다.

순매수 3위에 이름을 올린 마이크로

소프트에는 4181만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 경쟁에 뛰어 들었는데, 지난 3일 협업 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사용자 대신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팀즈용 3D 아바타 신기능을 보여줬다. 3D 아바타는 3D 협업 공간을 지원하는 '팀즈용 메시(Mesh for Microsoft Teams)'의 일부로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는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결합해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계층을 만들고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에 컴퓨팅을 품게 하고 컴퓨팅에 현실 세계를 품게 함으로써, 모든 디지털 공간에 실재(real presence)를 갖다 놓을 수 있게 해준다"고 메타버스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미국 카드업체인 비자, 양자컴퓨터 전문기업인 아이온큐에도 각각 3539만 달러, 3407만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비자는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대형 핀테크 기업과의 관계

를 조사 중이라는 보도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 반독점 조사 관련 주가 하락은 과도하며, 향후 반등 전망이 높아지며 순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온큐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등장했다. 증시에 첫 상장한 양자컴퓨터 기업으로, 지난 2015년 김정상 듀크대 교수와 크리스 몬로 메릴랜드대 교수가 설립했다. 양자컴퓨터는 이른바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데 반도체가 아닌 원자를 기억소자로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주가도 한달새 두배 이상 급등했다.

이 외에도 ▲페이팔(3285만달러) ▲화이자(3051만달러) ▲아이셰어즈 1~5년물 단기 회사채 ETF(ISHARES 1-5 YEAR INVESTMENT GRADE COPDRATE BOND ETF·2952만달러)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시리즈 1 ETF(INVESCO QQQ TRUST SR S 1 ETF·2672만달러) ▲알파벳 A(2418만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 10종목에 등장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아마존 물류센터 등 보유... 수익·성장성 확보 NH투자증권-롯데호텔, 실버사업 펼친다

IPO 간담회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선진국 우량 물류·데이터센터 등 편입 "국내 대표 글로벌 리츠로 도약할 것"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미래에셋글로벌리츠(미리자산)가 12월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6일 여의도에서 리츠운용본부 박준태 본부장 및 주요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스피 상장에 따른 미래에셋글로벌리츠의 향후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미래에셋글로벌리츠는 미국, 서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핵심 지역 소재 우량



16일 박준태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츠운용본부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차인이 장기 임차한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및 오피스 등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영속형 상장 리츠다. 현재 미국 물류 요충지인 휴스턴, 탬파,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아마존과 페덱스 물류센터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글로벌리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비대면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고속 성장하는 물류센터를 자산으로 편입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아마존, 페덱스와 같은 글로벌 우량 기업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인으로 유치하며 안정성도 지녔다는 설명이다. /박미경 기자

프리미엄 실버사업 업무협약

NH투자증권이 롯데호텔과 '프리미엄 실버사업 관련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됐다. 정형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과 최승호 IB2사업부대표, 롯데그룹의 이봉철 호텔&서비스 BU장과 김현식 롯데호텔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향후 프리미엄 실버사업을 위해 협력하며 관련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 NH투자증권은 이를 계기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의 투자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올해 ESG평가에서 국내 증권사 중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상향된



최승호 NH투자증권 IB2사업부 대표(왼쪽부터), 김현식 롯데호텔 대표이사, 정형채 NH투자증권 대표, 이봉철 롯데그룹 호텔&서비스 BU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사회책임투자 활동 강화로 향후 ESG 책임경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금년 15.7%에서 2045년에는 약 3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력을 갖춘 노인층을 위한 고급 주거복지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박미경 기자

DL건설 대전 유천 가로주택정비 시공사 선정

총 공사비 약 2153억

DL건설은 '대전 유천 1BL·2BL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DL건설에 따르면 대전시 중구 유천동 335-94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대 49층, 6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블록(BL)에는 공동주택 377가구, 오피스텔 40가구가 들어서는 2블록(BL)에는 공동주택 407가구, 오피스텔 38가구가 들어선다. 총 공사비는 약 2153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47개월이다.

교통시설은 국도 4호선과 대둔산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025년 대전 2호선 트램이 개통 예정이다. 대전 서남부터미널과도 인접해 있어 충청, 인천, 김포공항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부지 반경 약 1km 내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는 평이다. 이밖에 DL건설은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평면인 'C2 하우스(HOUSE)'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DL건설은 ▲서울 석관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대구 수창동 84-1 가로주택정비사업 ▲안성 당왕지구 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에서 수주 및 사업권을 확보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대전 유천 1BL·2BL 가로주택정비사업 투시도. /DL건설

DL건설 관계자는 "오랜 기간 주택사업에서 쌓아 올린 노하우에 e편한세상이란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더해져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건설과 토목 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쏟아 연내 누적 수주액 3조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잠자던 주식·배당금 79억, 주인 찾았다

예탁원, 휴먼투자재산 캠페인 종료

잠자고 있던 주식과 배당금 79억원이 주인을 찾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고 전자증권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2021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및 전자증권 전환 캠페인'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특별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실물주식을 소지한 주주에게 전자증권 전환을 유도해 유통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예탁결제원은 총 6주(2021년 10월 01일~11월 05일)에 걸쳐 주권 보유 사실

을 잊은 주주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보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찾아준 금융재산은 미수령 주식 667만주(평가액 46억원), 전자증권 전환 주식 48만주(평가액 33억원)다. 상장종목은 접수일 전일종가, 비상장종목은 액면가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과 병행 실시한 실물주식 전자증권 전환 캠페인은 오래된 주권을 보유한 주주부터 주권을 분실한 주주까지 다양한 사례의 주주가 내방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주의 연령대와 실물주식 반환 등을 고려해 전국 소재(서울·대전·대구·광주·전주·부산)의 한국예탁결제원 창구를 통해 실시됐다. /박미경 기자